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17호 2018년 07월 26일(목)/계간

발행인 · 김두년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Campus News

02 우리 대학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 대학선정
02 환경부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의장 대학 선정
02 2018년 충북지역 총장협의회 개최
02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취업 두드림 사업 선정
03 이화용 교수, 줄기세포 기능 조절 신물질 발굴 및 작용 기전 연구
03 개교 9주년 기념식 가져
0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중독 예방 및 식생활 개선 체험부스 운영
0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04 우리 대학 '드론기초운영과정 교육' 성료
04 협약식

Students News

05 2018 춘계전국학생승마대회 우승
05 우리 대학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
05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05 연극영화학과, 졸업공연으로 재능기부!
06 항공서비스학과,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재능 봉사 참여
06 제9기 캠퍼스 안전 순찰대 발대식 개최
06 2018학년도 상반기 발자취 총학생회 '미르'
07 Do – Dream 두드림_청년취업 프로젝트

Social News

08 작업치료학과, '치매선별검사' 봉사활동 펼쳐
08 축구부가 뜨거운 열정을 배달합니다!
08 축구부 연탄 봉사 현장 비하인드 컷

JWU in 人

09 중원의 영원한 에너지人 – 구자공 교수님 은퇴식
10 우리학교 슛돌이 – 중원대학교 축구부 이야기

Global JWU

11 따지아하오! 워먼 중원인!
11 언어교환 프로그램 & 유학생과 함께 하는 한국 문화체험

Life in JWU

12 · 13 괴산에 나혼자산다 2 – 학과특집
14 미술랭 in JWU

Healing Campus

15 별들에게 말해봐_너의 소원은 뭐니?
16 기숙사에서 힐링하기
17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18 우리들의 '소확행'
19 · 20 학과 TALK TALK – 작업치료학과와 간호학과 봉사활동 – 항공대학 소식 _ 항 · 소 · 전

Culture

21 너의 삼겹살 취향이 궁금해
21 중원대에서 청정으로 살기
22 JR의 사진교실 _ 당신의 손을 금손으로!
23 Made in 중원 – 빠숑피플 2
24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우리 대학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 대학 선정



▲우리 대학이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사례 대학 선정과 함께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그린캠퍼스 사업단 이홍찬 교수(왼쪽), 이응세 팀장(오른쪽)

우리 대학이 5월 24일 서울 에나 스위트(ENA SUITE) 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사례 선정대학 시상 및 현판수여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개최한 '2018년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한 전국 대학 중 5개교를 우수 대학으로 선정해 시상했으며, 우리 대학은 친환경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우수상과 함께 1억 원의 그린캠퍼스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우리 대학은 정부지원금과 교비를 투입해 교내 강의실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기숙사와 스포츠센터 등에 절수장치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설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캠퍼스 사업단장 이홍찬 교수(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는 "우리 대학은 구성원들이 동참하여 친환경 생활 실천운동,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과 그린캠퍼스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제4기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의장대학으로 선정돼 국내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협력,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대학간 우수사례 공유 등의 업무를 관장해 수행하고 있다. 〈편집부〉

환경부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의장대학 선정

우리 대학이 4월 18일 서울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열린 '2018년 환경부 그랜캠퍼스 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4기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의장대학으로 선정됐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매년 그린캠퍼스 운영 대학을 선정하고,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예산 및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4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원대는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지열냉난방 시스템, 공기열 히트펌프 급탕시스템 등의 에너지 공급 설비를 구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 그린캠퍼스 실천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의장대학으로서 △국내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협력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저탄소 그린캠퍼스 선정 대학간 우수사례 공유 등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여 수행하게 된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대학은 친환경 생활 실천운동,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인재양성과 그린캠퍼스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리 대학은 지난해 그린캠퍼스 연차평가 결과 고득점을 받아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우수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이와 함께 중원대 이홍찬 그린캠퍼스 사업단장(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교수)이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우수대학 공로자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편집부〉



▲오른쪽이 이홍찬 중원대학교 그린캠퍼스 사업단장.

2018년 충북지역 총장협의회 개최



▲2018년 5월 충북지역 총장협의회에 참석한 충북 지역 대학 총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우리 대학이 5월 24일 오후 4시 본관 3층 회의실에서 '2018년 5월 충북지역 총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장협의회에는 중원대를 비롯해 충북대를 포함한 협의회 소속 17개 대학 중 15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지역 대학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학 간 상호협력과 지역사회 기여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 되었다.

회의에 앞서 진행한 김도완 교수(중원대 식품공학과)의 '충북지역 특화사업과 유기농산업'이란 특강에서는 중원대를 중심으로 괴산군 유기농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낸 성과를 다뤘다.

총장협의회를 마친 도내 대학 총장들은 중원대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교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교육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호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지역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대학 간 교육자원 공유를 통한 상호협력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 총장협의회는 충북도내 17개 대학 총장 협의체로 회장교는 U1대학교이며, 1년에 여섯 차례 정기모임을 갖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6월 총장협의회는 강동대학교에서 열린다.

〈편집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취업 두드림 사업 선정



▲우리 대학이 2018년 청년취업 두드림사업에 선정되었다.

우리 대학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청년취업 두드림(Do-Dream)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이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및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취업자의 정규직 채용 및 안착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우수 인재 및 취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전국 41개 대학을 선정해 운영한다. 우리 대학은 이번 사업에 선정되어 본교 졸업예정자 20여 명이 청년취업 두드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교육 △4차산업혁명 스마트해외원정대 연수 △4차산업 취업직무 강화 연수 △우수 기업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일자리 찾기 지원을 통해 취업성공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대학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과 상시적인 진로상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는 전문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2017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취업률 69.4%로 충북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7면

오선민 기자 min123012@jwu.ac.kr

이화용 교수, 줄기세포 기능 조절 신물질 발굴 및 작용 기전 연구

– 줄기세포 기능 조절 신물질 발굴 및 관련 기전 규명 –



▲이화용 교수

우리 대학의생명과학과 이화용 교수가 세포 내 효소인 'GRS(GlycyltRNA Synthetase)'의 새로운 효능을 발굴하고 관련 작용 기전 연구논문을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Cell Death And Differentiation'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새로운 세포 손상 신호인 Glycyl tRNA Synthetase가 중간엽 줄기 세포의 여러 유익한 기능에 미치는 영향(A novel endogenous damage signal, glycyl tRNA synthetase, activates multiple beneficial functions of mesenchymal stem cells)'이라는 제목으로 '셀 데스 앤드 디퍼런세이션(Cell Death And Differentiation)' 온라인판 4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세포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효소인 GRS가 다양한 손상 자극에 의해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줄기세포의 증식, 분화, 그리고 이동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줄기세포의 치료 능력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로서 이화용 교수팀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다.

이화용 교수는 "성체줄기세포의 낮은 치료 효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를 시도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발굴한 GRS를 이용한다면 기존에 한계로 지적된 성체줄기세포의 낮은 치료 효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논문색인(SCI) 저널인 'Cell Death And Differentiation' 학술지는 생명과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의 자매지로서 Impact factor=8.339에 해당할 만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로 알려져 있다. 〈편집부〉

개교 9주년 기념식 가져



▲개교 9주년 기념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5월 4일 본관 CEO룸에서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개교 9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 교직원과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국민의례, 공로상 수여, 총장 기념사, 교가제창, 폐회사,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김진 입학처장(신입생 및 편입생 유치) △정명희 평생교육원장(신편입생 유치 및 말산업 유치) △유태식 재무회계팀장(대학 회계시스템 정상화 기여) △우정현 학사팀 직원(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준비) △경찰행정학과 심재근 학생(남자생활관 흡연실 화재 초기 진압) △법무법학과 권민석 학생(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한 대학 행사·발전에 기여) 등이 대학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국내외 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 유학생 유치, 지속적인 취업률 향상 등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우리 대학이 지역대학을 넘어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교기념식을 마치고 오후에는 산막이 옛길 탐방과 단합대회를 진행함으로써 대학구성원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이어갔다. 〈편집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날 맞이 식중독 예방 및 식생활 개선 체험부스 운영



▲중원대학교–괴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위탁 운영하는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안정좌)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식중독 예방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홍범식 고택 일원에서 열린 '제13회 괴산군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장에서 진행됐으며,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의 특징과 증상, 감염원, 식중독 원인식품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식중독 예방 교육과 편식 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배포한 '식중독 잡GO' 앱을 활용하여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채소·과일을 이용한 부채만들기 체험과 채소·과일 비누 클레이 제공 등 다양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해 식중독과 편식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안정좌 센터장은 "최근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올바른 식습관 실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 급식의 영양과 위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중원대 교내에 개소한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식단정보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급식 운영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편집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우리 대학 PT룸 에서 열린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우리 대학이 6월 7일 본관 PT룸에서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중원대 산학협력단·취창업지원센터와 괴산군 및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된 식품산업 멀티인력 양성교육과정의 교육생과 중원대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괴산지역 구직희망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입사서류 및 취업매칭 컨설팅, 이력서용 증명사진 무료촬영 서비스와 창업컨설팅을 실시하여 취·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관내 식품관련 15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면접을 통한 직접채용을 진행했다. 〈편집부〉

우리 대학 ‘드론기초운영과정 교육’ 성료



▲드론기초운영과정 교육 종강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드론기초운영과정교육생들이 드론 비행 실습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4월 13일 오후 1시 CEO 룸에서 교육생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기초운영과정 교육 종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 산업인 드론산업 분야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맞춤형 항공촬영 및 농업방제용 드론운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괴산군의 예산을 지원 받은 중원대가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했다.

교육생 30명(군민 15명,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2개 반으로 나눠 지난달 9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주 1회 8시간씩 총 6주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드론의 이해 △항공안전법 등의 이론 교육과 △드론 제작 및 모의비행 △실기비행 및 항공촬영 실습 등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생들의 드론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교육 책임교수인 김진 입학처장(컴퓨터공학과)은 “이번 교육이 수료생들에게 드론운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괴산지역의 다양한 산업분야와 재난안전 관리 등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PHOTO NEWS 협약식



▲ 중원대, ㈜르호봇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이 6월 7일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와 취 · 창업 프로그램 교류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합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이랜드파크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지난 6월 5일 오전 11시 교무회의실에서 ㈜이랜드파크와 관광산업 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체형관리운동협회와 교류협약 체결
우리 대학이 5월 29일 오전 (사)한국체형관리운동협회와 체형관리운동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 대한스포츠비행드론협회와 교류협약 체결
우리 대학이 지난 3월 24일(사)대한스포츠비행드론협회와 스포츠산업 육성과 이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 세계황칠축제조직위원회와 교류협약 체결
지난 5월 25일 세계황칠축제조직위원회와 스포츠산업 육성과 건강복지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영화배우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이 지난 3월 7일 한국영화배우협회와 한국영화의 발전과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 춘계전국학생승마대회 우승

– 말산업융합학과 정건호 학생, 대학부 승마대회 신흥강자로 부상 –



▲말산업융합학과 1학년 장건호 학생(사진 가운데)

우리 대학 말산업융합학과가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경북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 '2018 춘계전국학생승마대회 및 제6회 1차 유소년 전국승마대회' 대학부 장애물 A클래스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학과 신설 첫해 첫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한국학생승마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상주시, 한국마사회가 후원하는 전국단위 학생승마대회로 총 37경기에 869명의 선수와 250여 두의 말이 참가했다.

정건호 학생(말산업융합학과 1학년)은 이번 대회 대학부 장애물 B클래스에서 3위를 차지한 뒤 연이어 장애물 A클래스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대학부 승마대회의 신흥강자로 부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권정현 교수(말산업융합학과장)는 "올해 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이 전국 학생승마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8학년도에 4년제 대학 최초로 말산업융합학과를 신설했으며 승마역학, 장제, 조련 및 마필관리, 재활승마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말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편집부〉

우리 대학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



▲장애학생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4월 25일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2018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 이상열 비서홍보실장, 권정현 교학지원처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 겸직),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들을 비롯해 장애학생과 도우미 학생, 총학생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간담회 후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갔다.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이 대학생활 중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권정현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건의됐던 출입구 경사로와 손잡이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모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장애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학교정책에 반영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며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든 대학 구성원이 평등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학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본관 2층 로비에서 교육부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공익광고 영상을 방영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장애학생 역사유적 문화탐방과 학습법 특강 등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선민 기자 min123012@jwu.ac.kr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원장 정명희 교수) 소속 중국인 유학생들이 5월 12일 법무부·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이 주최한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사회적지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중국, 불가리아, 미국 등 여러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 총 12개 팀을 이뤄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하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중원대 중국인 유학생 장사우, 교위한, 진희 학생은 국제교류원의 한국어 과정을 거쳐 석사과정을 수학중이며, 평소 틈틈이 대회를 준비하여 에어로빅팀 '날봐 귀순'이라는 팀명으로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명희 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대학 유학생들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국제교류원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유학생 지원정책과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장기와 재능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1면



▲장사우, 교위한, 진희(왼쪽부터) 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에서 장려상을 수상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극영화학과, 졸업공연으로 재능기부!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가 5월 15일 교내 중원소극장에서 지역 청소년 연극동아리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찾아오는 연극 공연'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연극을 재능기부한 것으로 공연이 전석 매진될 정도로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소외계층들을 초청하여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펼쳐 문화 나눔 재능기부의 의미를 드높였다.

공연을 단체관람한 지역 청소년 연극동아리 인솔교사 황금미영 선생님은 "몇 년째 중원대 연극영화학과 졸업공연을 보고있는데 학생들의 기량과 예술성이 향상되고 있어 매우 놀랍고,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양질의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해 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즐겁고 좋은 연극공연과 영화를 많이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중원대 연극영화학과 박용갑 교수는 "우리 학과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문화 나눔을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예술 재능기부를 실천할 계획이므로 학생들의 공연과 재능기부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극영화학과는 2014년부터 매년 '찾아가는/찾아오는 연극·영화 공연'을 기획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음성품바축제, 세종대왕 어가행렬, 괴산고추축제 등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편집부〉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이 공연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항공서비스학과,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재능 봉사 참여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서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피켓도우미와 선수단 의전 활동 봉사에 참여했다.

우리 대학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 35명이 4월 27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막식의 피켓 봉사자로 선정돼 봉사활동을 펼쳤다.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들은 각종 대회 피켓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경북 도내 23개 시·군 선수단을 이끄는 피켓 봉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유주호 학생(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은 "행사 준비하면서 힘들고 많이 긴장됐지만 참가 선수들과 관객들의 호응을 통해 봉사의 즐거움과 중원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연숙 학과장은 "이번 봉사를 통해 학생들이 쌓은 경험이 앞으로 승무원이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서비스학과는 지난해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98회 전국체육대회의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가해 피켓 봉사, 선수단 의전 등의 봉사를 펼치며 대회 행사를 빛냈다. 〈편집부〉

제9기 캠퍼스 안전 순찰대 발대식 개최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안전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경찰행정학과가 27일 PT룸에서 김두년 총장을 비롯한 학과장, 괴산경찰서장, 경찰행정학과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캠퍼스 안전 순찰대 발대식"을 가졌다.

총 44명으로 구성된 '제9기 중원대 캠퍼스 안전 순찰대'는 괴산경찰서 현역 경찰관과 치안서비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여성안심귀가길, 신고다발지역인 우범지역 위주로 오는 6월 말까지 순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발대식에서는 1학년부터 활동해온 연동현(4학년/3기)학생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동섭 괴산경찰서장은 "중원대 캠퍼스 안전순찰대는 재학생들 뿐 아니라 괴산지역 안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공부도 해야하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순찰대 활동을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행정학과 캠퍼스 안전 순찰대는 2013년부터 경·학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00여 명의 학생들이 '캠퍼스 안전순찰대'로 활동했다. 〈편집부〉

총학생회 '미르' 2018학년도 상반기 발자취 PHOTO NEWS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사)중원청소년문화복지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중원대학교 총학생회 '미르'가 중원청소년문화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대학 육성정책 및 청소년 활동에 앞장서는 미르를 기대해 봅니다.



◀성년의 날 이벤트
생에 단 한 번 뿐인 성년의 날을 맞는 20살 학생들을 위해 '미르'가 장미 비누와 립밤을 준비해 선물했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은 학생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린캠퍼스 만들기 활동
총학생회와 각 단대 학생회가 힘을 합쳐 그린캠퍼스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흡연구역 청소 및 캠퍼스 청소 활동으로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원한마음체전 총괄 및 진행
2018학년도 1학기 가장 큰 행사였던 중원한마음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 및 마무리 했습니다. 총학생회의 노고로 사고 없는 안전한 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
글로벌한 스펙,
인성으로 완성하는 중원대학교가
궁금하다면?
중원대학교 SNS 바로가기
중원대 공식 SNS
블로그 페이스북 언론장학기자 홍보대사 가람

Do Dream 두드림

– 꿈을 위한 취업 프로젝트



여러분들은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함께하는 두드림 청년취업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 등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며 최선을 다 했다고 합니다.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을 응원하며, 꿈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친구들의 각오를 함께 들어보시죠!

오선민 기자 min123012@jwu.ac.kr

Q. 두드림 청년취업 프로젝트란?

A.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이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Q.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나의 각오는?

경영학과 13학번 이승훈



안녕하세요, 이승훈(경영학과 13학번)입니다!

저는 취업과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여러 경험을 통해 보다 넓은 견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두드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번 두드림에 선발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학교의 대표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 학우들과 다양하게 어울리며 여러 경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음에 있을 두드림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 다음에 참가하게 될 후배들에게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공학과 15학번 이신정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교수님의 추천을 받고 '두드림'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가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큰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함께 준비하던 학생들의 영상을 보았을 때, 제가 준비한 영상은 보잘 것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준비하던 사람들의 많은 피드백 덕분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경험과 사람들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고 많이 성장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재료공학과 13학번 신동주



저는 인생에 있어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드림에 도전했습니다.

두드림을 통하여 앞으로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 기업들을 탐방하며 적어도 학생신분일 때 알 수 없던 실무적인 사실들을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영상을 제작했고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회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이 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열정적으로 참여해 저의 것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참여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두드림에서 뭘 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대답하고 그게 저의 이력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항공재료공학과 12학번 이정우



2019년 상반기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던 중 교수님의 권유로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되었지만 막상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니 목표한 시기보다 빨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연봉이 적지 않은 강소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참여기업의 분야 또한 제 전공 관련 분야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이 되는 자기소개 영상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도 있었고 처음 만들어보는 탓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글이 아닌 영상으로 녹여내야 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새우고 여러 차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영상을 만들었고, 프로젝트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웃음)

저희가 중원대학교 두드림 프로젝트의 첫 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설레기도 하지만 그만큼 긴장되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저희가 얻은 좋은 기회가 후배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학과 13학번 김명현



레저스포츠학과 13학번 김명현 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분야와 전혀 다른 IT쪽에 새로운 눈을 뜨도록 밑바탕이 되어준 두드림 사업에 감사드립니다.

두드림 사업은 다양한 정보와 해외연수를 통해 발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다른 분야이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좀 더 갈고닦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길 응원합니다!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배서희



안녕하세요,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배서희입니다.

먼저 이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게 해 주신 최상범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통해 두드림 청년취업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자 하는 생각과 함께, 4학년인 지금 취업이 다가오는 시기에 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많은 활동과 미션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고 배우며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다녀와서 한층 더 성장할 저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첫 기수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작업치료학과, ‘치매선별검사’ 봉사활동 펼쳐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괴산산막이시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작업치료학과(학과장 신수정)가 괴산군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13일 괴산 산막이시장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작업치료학과 교수와 재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괴산장날 시장을 찾아오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치매선별검사는 지역 어른신들이 조기에 치매 위험군을 발견하여 치매 노인 증가율을 낮춰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표적인 치매선별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E)와 함께 근력검사, 시야검사 등의 신체기능 검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및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수정 작업치료학과장은 “중원대 학생들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지난해 충북지역 대학교 중 최초로 치매극복 선도대학으로 지정됐으며 매년 주기적으로 치매 인식개선 교육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축구부가 뜨거운 열정을 배달합니다!

– 중원대학교 축구부 연탄 나눔 봉사 –



▲우리 대학 축구부 부원 40여 명이 연탄 1600장(1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지역 5개 저소득가구를 일일이 방문, 연탄을 전달했다.

우리 대학 축구부(감독 이세인)가 6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축구부 감독과 학생 50여 명은 십시일반 모은 100여만 원으로 연탄 1600장을 구입해 괴산지역 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구 5곳을 방문해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세인 감독은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이 크고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연탄 한장 한장을 나르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중원대 축구부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창단된 중원대 축구부는 최근 대학축구의 신흥강자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축구부원들은 ‘에너지’라는 팀 슬로건처럼 지치지 않는 젊은 열정으로 학업과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축구부의 연탄 봉사 현장 비하인드 컷

햇살 뜨거운 여름날 연탄을 나눠드렸다는 것이 아리송하신가요? 겨울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연탄은 만든 직후 쓰는 것보다 말려두었다가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미리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따뜻한 봉사활동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 얼굴에 숯검정을 묻히고 해맑은 표정으로 봉사활동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더운 여름날 힘들만도 하지만 즐거워하는 모습이 뜨겁게 불타는 연탄만큼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 평소 전술 훈련을 열심히 한 덕분에 연탄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술을 활용하여 옮기고 있네요.



◀ 하나! 둘! 빠르고 정확하게 연탄을 옮기고 있습니다. 연탄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옮기는 것도 중요하죠!



▲ 축구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세인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까지 함께 솔선수범 하는 훈훈한 장면이네요!



▲ 연탄을 옮기던 중 어르신들을 향한 마음을 머리위로 그린 큰 하트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중원의 영원한 에너지 人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길 – 구자공 교수님 은퇴식



중원대학교 개교부터 함께 시작해 오신 구자공 교수님(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께서 어느덧 정년을 맞아 강단을 떠나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제자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가며 강단에 서 계시던 열정적인 모습을 그리워하며 은퇴식을 준비합니다. 학교와 학과에 많은 힘을 더해주시고 제자들의 미래까지 생각해 주시던 구자공 교수님. 교수님의 마지막 은퇴식을 함께 하려합니다.

한민혁 기자 1010hmh@jwu.ac.kr



구자공교수님과 사모님의 은퇴식 시작하기 전에 다정한 모습.



송대한 학회장(14학번)이 교수님께 학생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렸다.



퇴임사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라”는 당부를 하셨다.

신재생 학생들에게 구자공 교수님이란?



안태현 학생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구자공 교수님께서는 중원대학교 개교 이래 10년 동안 교육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시며 그 누구보다 학생들의 고민에 공감해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훗날 취업 후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승미 학생(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6학번)

구자공 교수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정년퇴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원대학교 개교와 함께 10년간 에너지공학부를 이끌어주시며 지금의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에 이르기까지 교수님의 노고가 학과의 성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교수님의 제2의 인생 역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채워 가시길, 더불어 가정의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되세요”





개교부터 함께 하였던 중원대학교를 떠나려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을 가르치면서 저 역시도 많이 배운 듯합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중원대학교 학생들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련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빛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테니 포기하지 말고 얼른 털고 일어나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의 가치가 묻어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중원대학교 모든 분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ENGLISH CAFE에 드루와



조별과제할 공간이 없다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하며 얘기를 나눌 곳을 찾는다고?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잉글리시 카페로 오세요!

친구들과 오순도순 모여 보드게임 한 판 할 곳을 찾는다고? 각종 카드게임부터
브루마블, 클루, 마작, 다트 등 다양한 게임을 카페에서 무료로 사용가능!



맨날 책으로만 공부하는 영어가 지겨울 땐?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님들이 모이는
Hot place 잉글리시 카페! 언제든지 프리토킹이 가능하며, 원하는 교수님과 1:1 튜더링공부도 신청가능!

OPEN
월요일에서 금요일
15:00 ~ 22:30 까지
수 많은 혜택이 있는
잉글리시 카페!
위치 : 국제교류원 옆



제17호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우리학교 슛돌이

중원대학교 축구부 이야기



창단한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신생팀인 우리 중원대학교 축구부가 어느덧 대학리그 정상급 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U리그에서는 2위, 올해 첫 출전한 FA컵에서 3라운드까지 진출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새 사령탑에 이세인 감독이 자리한 후 점점 훌륭한 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 대학 축구부의 돌풍, 그 중심에 있는 이세인 감독을 만나 인터뷰 했습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이세인 감독

Q. 감독으로 부임한 첫 해, 팀을 어떤 스타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팀을 꾸리고 리빌딩* 하는데 있어서 선수들과 스텝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예의와 인성을 갖춘 팀을 만들자' 였습니다. 좋은 인성과 좋은 성품은 사람이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저 또한 솔선수범해서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팀의 모토를 '에너지' 로 정했는데 축구장에서 개인의 열정, 열의가 동료에게 전해지고 팀 전체에 퍼져나가는 에너지 넘치는 대학축구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Q. 첫 출전한 FA컵에서 선전했습니다. 예상한 결과였나요?

솔직한 마음으로 대진표가 나왔을 때부터 3라운드에서 수원FC를 만날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상대팀을 얕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중원대 선수들이 많이 성장하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준비만 잘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FA컵에 출전한다면 4라운드까지 진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Q. FA컵만큼 중요한 리그도 남아있습니다. 리그에서는 몇 위를 목표로 하나요?

7월 17일 현재 11라운드까지 진행했고 5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남은 경기를 치른다면 상위권 팀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좋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중원대학교에서 팀을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혹은 좋은 점)이나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단 팀을 리빌딩한 상태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정도의 팀을 꾸리고 있진 못하지만 예전보단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나 불만사항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축구부를 좋게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려 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은 자유로운 운동장 사용입니다. 운동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선수들이 학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훈련시간을 가질 수 있어 더욱 발전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대학리그 또한 중원대학교 운동장에서 홈경기를 치룰 수 있다면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선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빌딩 : 팀 구성원의 변화를 통해 팀을 새로이 만드는 것.



안녕하십니까! 축구부 주장 지병우입니다.

주장이라는 위치에 항상 감사하고 책임감을 가지면서 개인보단 먼저 단체, 팀을 생각하고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면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운동장에서 팀이 더욱 더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고생하는 팀원들, 지도자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함께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학최강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작은 정성이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 여러분이 주신 기금은 학교 전략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동문, 학부모, 기업체 인사, 교직원, 독지가, 중원대에 관심있는 모든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참여방법

1. **현금 즉납**
2. **무통장 입금 |** 아래의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세요.
   농협 301–0018–0977–31(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07855(중원대학교 장학기금),
   국민 615801–04–211393(중원대학교 발전기금)
3. **자동이체 신청 |**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신청전화 043–830–8076 (*문의처로 연락하여 반드시 입금 확인)

■ **문의처 |** 전화 (043)830–8076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관리팀) / 팩스 (043)830–8079

따지아하오! 워먼 중원인!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제11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열린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에서 우리 학교 대표로 참가한 중국인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전공 공부하랴, 한국어 배우랴 바쁜 와중에도 장려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삼총사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원대학교 체육학부 대학원생 (왼쪽부터) 장사우(17학번), 교위한(18학번), 진희(16학번)입니다. 이번 대회는 12개의 국가 외국인들과 함께 참여했는데요, 그중 저희는 Dream Of China 팀명의 에어로빅팀으로 출전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나 수상한 소감은?



장사우 무대에서 최선을 다한 후 내려올 때, 후회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상까지 받을지는 생각지 못했는데 상도 받고, 학교에서도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저희는 지금 국제교류원의 한국어 과정을 거쳐 체육학부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공부에 지친 저에게 에어로빅 대회 준비로 학교생활에 활력소를 얻는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교위한 우선 저희 3명 모두 중국에 있었을 때 스포츠 경기 에어로빅 선수였어요. 예전에 선수일 때와 이번에 나간 대회의 성격은 다르지만, 오랜만에 무대에 오르는 자체가 즐거웠어요. 또, 여러 나라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점이 재미있었고, 전국에서 서로 몰랐던 유학생들을 만나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진희 쉬운 동작부터 시작해 어려운 동작까지 해내려면 체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헬스장을 이용해 몸을 단련하고 키웠습니다. 체력관리나 연습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많이 냈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도 모두 같이 준비한 친구들 덕분이라 생각해요.

Q. 학교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유학 생활을 즐기는 꿀팁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장사우 중국에서는 대학교도 아침, 저녁 시간에 의무적으로 자습을 해야 해요. 하지만 그에 비해 한국 대학생활은 자유로워서 좋아요. 수업 이외에도 중원대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예의, 문화, 풍습 등을 배울 수 있었어요.

또 학교에서 읍내까지 데려다주는 편리한 셔틀버스도 무료로 지원해주고 터미널에서 여권이나 다른 절차 없이도 바로 다른 도시로 갈 수 있어 편리해요.



교위한 한국은 중국보다 물가가 비싸서 외식이 부담되는 편인데 대신 학교식당에서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학교 곳곳 시설들은 이용할 때에도 학생들은 할인해주는 점도 만족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공부 환경이에요. 그린캠퍼스답게 푸른 잔디와, 공기 좋은 곳에서 공부를 하니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희 저는 평소에 많이 돌아다녀요. 특히 괴산 장날이면 읍내 장터에 가서 사람 사는 맛을 느낀다고 할까요. 여기 시골 사람들은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멀리서 왔다면서 웃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하고 자주 느껴요.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들과 서울여행을 가요. 역시 한국에 왔으면 서울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언어교환 프로그램 & 유학생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체험

중원대학교 내에서 유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유학생 친구들도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의 언어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국제교류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번 학기에 진행된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첫 만남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툰 실력이지만 준비해온 한국어로 멋지게 발표하는 중국 친구들~!



언어교환 프로그램 활동 시작

잉글리쉬 카페에 모여 1시간은 중국어, 1시간은 한국어를 사용하며 실력을 쑥쑥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10주 동안 진행이 되고, FOS 시간 중 O영역 최대 1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팀별 활동결과에 따른 상품도 지급되니, 이번 학기에 놓치신 분들은 다음 학기에 한 번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온 유학생 3명과, 한국인 3명이서 조를 나누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껏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첫날! 이렇게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에버랜드 튤립 축제

4월 15일 날 유학생 친구들과 본교생 친구들이 함께 에버랜드 튤립 축제 다녀왔습니다. 유학생 친구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서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모이 주는 체험, 범퍼카,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도 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매 학기마다 에버랜드, 사적 공원 등 한국 문화체험을 떠납니다. 다음 학기는 또 어떤 다른 곳을 갈까 기대가 되네요.

우리들의 한마디

우로림 (뷰티헬스학과 17학번)
벚꽃, 튤립 등 많은 꽃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 고향에도 봄은 있지만 그 시기가 비교적 짧아서 느끼기 어려웠는데, 한국에서 봄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석 (아동보육학과 18학번)
평소에 한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중원대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더불어 언어교환 프로그램을 하면서, 평소에 책으로 접할 수 없는 한국인만의 작은 습관과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한국인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후영양 (국제통상학과 15학번)
꽃과 놀이동산 이 두 가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갈 곳이 한정적인데, 이번에 문화체험을 통해 새로운 장소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17호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괴산에 나 혼자 산다2

괴산의 중원대,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우리들의 일상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매일 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에 꿈과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이들을 응원해 주세요! ※본 기획은 SNS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항공운항학과 17학번 이지윤 학생

AM 9. 기숙사 - 기상 후 등교준비



안녕하세요 항공운항학과 17학번 이지윤 입니다.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1,2교시 등교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5분 간격으로 알람을 20개나 맞춰야 수업 20분전에 일어나 급하게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동기들이 화장 좀 하고 오라고 하지만 저에겐 아침화장은 사치입니다^^

AM 11. 비행 시뮬레이터 실습실 - 시뮬레이터 실습



우리 학교에 비행 시뮬레이터 실습실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실제 비행기에 있는 비행조종 장치들을 사용해 보면서 실전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아니지만 실습에 들어가면 항상 긴장되기 마련이에요...

PM 1. 읍내 음식점 - 점심식사

금강산도 식후경!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저는 주로 학식을 이용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동기들과 외식! 다 같이 읍내에 나가 맛난 것 좀 먹으려 해요.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친구가 많이 없어 조용조용 밥만 먹었는데 이제는 밥 먹는 시간보다 수다 떠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 같아요. 밥 먹으면서 학과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한 힐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PM 3. 동아리실 - 동아리 활동(E.N.T)



중원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 있는 동아리! E. N. T 에 대해 아시나요? 보컬, 랩, 댄스 등 학교에 많은 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입니다. 사진에 있는 곳은 스포츠센터 옆에 위치한 저희 동아리 실입니다. 저는 E. N. T에서 댄스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평소 춤에 관심이 많아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활동기간이 길어져 많은 행사와 공연 등에 참여해 사람들에게 E. N. T를 알리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나 축제 때도 공연하니까 많이들 보러와 주세요.~~

PM 5. 본관 강의실 - 학과 행사



부학회장을 맡고 있어 임원끼리 회의를 해 학과 행사나 여러 가지 정해야 할 일을 정합니다. 학업과 겹쳐 힘들 때도 있지만 동기들과 선후배들의 응원 덕분에 항상 힘을 내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 동기들과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PM 10. 기숙사 - 여가시간



하루일과가 마무리 되면 거의 저녁 10시 넘어서 기숙사에 들어와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 꼭 늦은 시간 배꼽시계가 울리더라고요^^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야식도 먹고 춤 영상도 보는데 요즘은 게임에 재미가 들려 손이 자연스럽게 노트북으로 가게 됩니다!

한민혁 기자 1010hmh@jwu.ac.kr

소방방재학과 18학번 최수영 학생

AM 7. 헬스장-운동



안녕하세요. 소방방재학과 18학번 최수영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처음엔 잠깐의 유혹을 못 이겨 다시 잠을 자곤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습관이 몸에 배어서 평일엔 빠짐없이 다니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침 헬스의 장점은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게 해준다는 것도 있지만 역시 가장 좋은 점은 무료라는 점!! 무료 개장시간은 오전 6시~9시까지입니다.

AM 10. 실습실 - 화학실습



소방방재학과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화학과 관련된 실습수업을 받아요. 이론수업만 듣기보다 이렇게 한 번 씩 직접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실습수업을 들으면 이해도 빠르고 흥미가 생겨 열심히 참여하게 된답니다! 그렇다고 이론수업을 게을리 하는 건 아니에요! ^_^

PM 1. 카페테리아 - 점심식사

점심엔 학생식당을 주로 이용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카페테리아를 이용하는 것 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일마다 정해진 메뉴 중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는 날엔 꼭 카페테리아를 이용하곤 한답니다! 오늘은 소세지 토스트! 여러 종류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PM 5. 열람실 - 공부



매일 수업을 모두 마치면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 항상 열람실에 들러 오늘하루 배운 내용을 복습하곤 해요! 열람실에서 잠깐이라도 복습을 하고 가면 배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기억도 더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공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비결이랄까요?

PM 7. 기숙사 - 과제



역시 대학생 하면 바로 과제를 빼놓을 수 없죠! 과목마다 한두 개씩은 과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과제는 역시 편안한 장소인 기숙사에서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기숙사에서 하는 과제는 효율도 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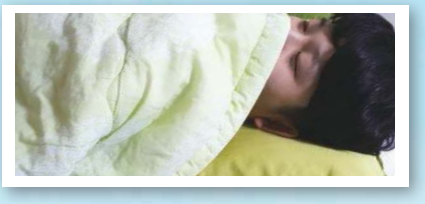
PM 9. 기숙사 - 게임

바쁜 하루 끝은 달콤한 휴식이죠! 역시 열심히 공부한 뒤 즐기는 힐링타임은 기쁨이 배가 된답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들과의 게임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단번에 해소시켜준답니다!



PM 11. 취침

저녁 점호를 마치면 바로 잠에 듭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도 해봤지만 역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생활리듬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잘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은 성적



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이준혁 기자 5075379@jwu.ac.kr

연극영화학과 15학번 이혜지 학생

AM 8. 운동장 - 아침운동



안녕하세요 연극영화학과 15학번 이혜지입니다. 저는 개운한 하루를 위해 아침은 가볍게 몸 풀기 운동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아직 잠들어있는 몸을 깨워주고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죠. 오늘은 특히나 공연이 있는 날이라 더 신경을 써서 몸을 풀어줍니다.

AM 10. 소극장 - 공연 리허설

더욱 완벽한 공연을 위해 리허설 중입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까지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부족한 법이니까요. 실수 없는 공연을 위해 다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중 입니다!



PM 12. 카페테리아 - 점심식사



완벽한 공연을 위해선 더 많은 리허설도 필요하긴 하지만 먹어야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메뉴는 제가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매워서 입술이 빨개지기도 하지만, 맛있게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PM 3. 분장실 - 메이크업



공연이 시작되기 전, 본격적으로 분장을 시작합니다. 메소드 연기의 시작은 찰떡같은 분장에서 옵니다. 내가 그 역할이 되고 그 역할이 내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 혼이 담긴 연기!!

PM 6. 소극장 - 공연



드디어 그동안 갈고닦은 모습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연습 했다구요! 무대 위에 있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PM 10. 벤치 - 대본 리딩



하루를 마무리 하고 방에 들어가기 직전, 교내 벤치에 앉아 내일도 있을 공연을 위해 또다시 대본 삼매경에 빠져듭니다. 내일도 실수 없고, 후회 없는 공연을 해야 하니까요.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 너무 늦게까지 보지 않고 금방 잠들기로 합니다.

오선민 기자 min123012@jwu.ac.kr

산업디자인학과 15학번 정희진 학생

AM 10. 전공 컴퓨터실 - 디자인 수업



안녕하세요~~ 산업디자인 학과 15학번 정희진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아이맥을 이용한 디자인 수업을 들어요. 학과 특성상 컴퓨터로 진행하는 수업이 많아요. 처음 입학할 때는 다룰 수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는데 4학년이 된 지금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저만 남아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거죠..?

PM 12. 한국관 - 점심식사



가끔 한국관에서 점심을 먹어요. 학식도 맛있지만 술을 마신 다음날 한국관에서 먹는 순두부찌개는 만점짜리 숙취해소제입니다.^^ 반찬도 많이 주시고 학생 할인 덕에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PM 1. 전공실 - 졸업전시회 준비



저는 올해 졸업반이라 졸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매년 학년별로 과제전을 준비하고 4학년 졸업반은 졸전을 준비하죠. 매년 하던 과제전과 달리 졸업전시회는 좀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4년 동안의 배움의 결실을 선보인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으니까요.

PM 3. 강의실 - 교수님 컨펌

준비하는 프로젝트들을 교수님께 컨펌



받고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가 봐요. 이것저것 교수님께서 조언해주시면 확실히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PM 6. 전공실 - 전공실 청소



하루 종일 전공실에서 다양한 작품제작 및 작업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양의 청소거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작업 후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엔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

이 전공실을 꼭 정리해야 해요. 오늘은 저 혼자 남아 정리를 하는 날이에요. 학과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니 마지막에 사용한 사람이 문단속 역시 철저히 해야겠죠? 이렇게 뒷정리까지 하고 나면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고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 들어 더 가볍고 뿌듯한 마음으로 귀가를 할 수 있습니다.

PM 10. 기숙사 - 과제



기숙사에 들어와 잠깐 쉬다가 다시 과제를 해야 해요. 디자인과의 숙명이죠. 매일이 과제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보다 과제와의 전쟁이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과제는 죽지 않거든요. 과제... 살아있네!!! 가끔은 과제하다가 책상에 엎어져 잠들기도 합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제17호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미슐랭 in JWU
중원대 카페테리아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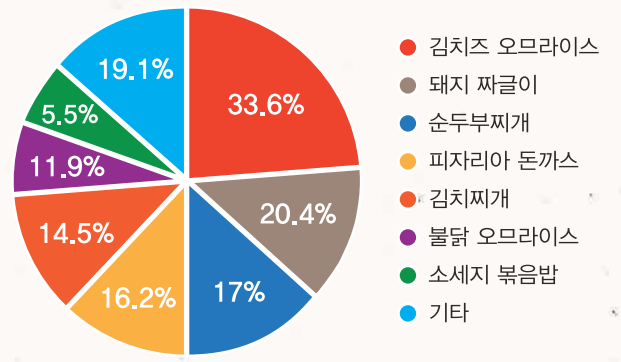
중원인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식사를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다양한 한식 메뉴들부터 간단한 컵밥들까지!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메뉴를 결정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메뉴선정이 어려운 당신에게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고른 교내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를 소개합니다!

01 한식

한 끼 식사로 안성맞춤인 카페테리아의 한식메뉴입니다. 생각보다 더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있는 한식! 한식메뉴들 중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메뉴를 소개합니다.

1위는 바로 김치즈 오므라이스입니다. 총 235명 응답 (중복가능)

1. 김치즈 오므라이스 – 79명 (33.6%)
2. 돼지 짜글이 – 48명 (20.4%)
3. 순두부찌개 – 40명 (17%)
4. 피자리아 돈까스 정식 – 38명 (16.2%)
5. 김치찌개 – 37명 (14.5%)
6. 불닭 오므라이스 – 28명 (11.9%)
7. 소시지 볶음밥 – 13명 (5.5%)
8. 기타 : 육개장, 김치볶음밥, 냉면, 제육덮밥, 돈까스 카레덮밥, 오므라이스, 순두부 짬뽕밥 등(19.1%) – 총 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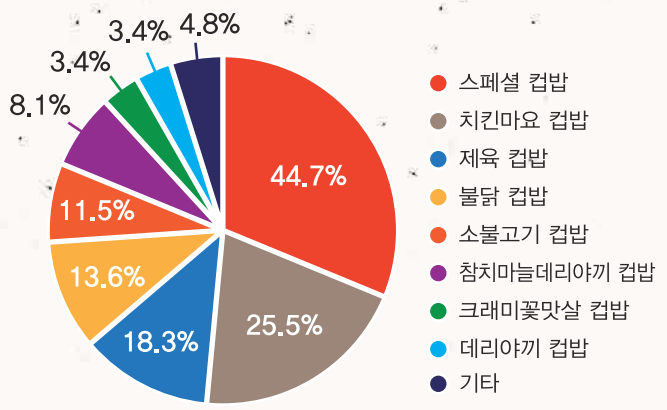


02 컵밥

다음으로는 간단하지만 든든한 컵밥 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은데다가 요일별로 메뉴가 달라서 질리지 않고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컵밥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1위는 압도적인 차이로 스페셜 컵밥이 선택되었습니다. 총 235명 응답 (중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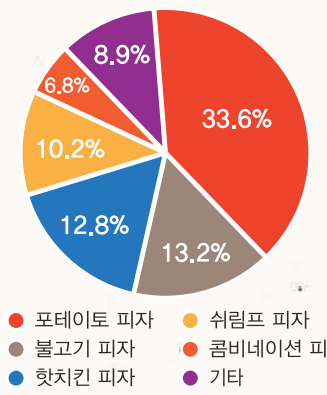
1. 스페셜 컵밥 – 105명 (44.7%)
2. 치킨마요 컵밥 – 60명 (25.5%)
3. 제육 컵밥 – 43명 (18.3%)
4. 불닭 컵밥 – 32명 (13.6%)
5. 소불고기 컵밥 – 27명 (11.5%)
6. 참치마늘데리야끼 컵밥 – 19명 (8.1%)
7. 크래미꽃맛살 컵밥 – 8명 (3.4%)
8. 데리야끼 컵밥 – 8명 (3.4%)
9. 기타 : 오징어 컵밥 등 – 총 12명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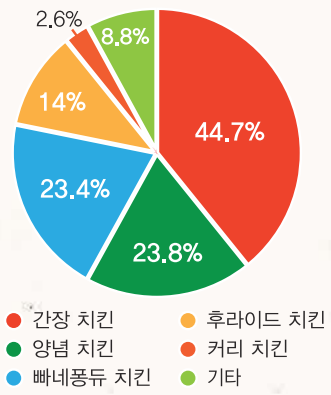
03 피자&치킨

야식으로도 좋은 피자와 치킨입니다. 특히나 중원대학교의 피자는 건강에 좋은 흑미로 만든 도우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맛있는 것 같습니다. 치킨도 최근 '컵치킨'이 등장하면서 더욱 간단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와 치킨은 어떤 것일까요?

피자 1위는 포테이토 피자, 치킨 1위는 간장치킨입니다. 총 235명 응답 (중복가능)



1. 포테이토 피자 – 79명 (33.6%)
2. 불고기 피자 – 31명 (13.2%)
3. 핫치킨 피자 – 30명 (12.8%)
4. 쉬림프 피자 – 24명 (10.2%)
5. 콤비네이션 피자 – 16명 (6.8%)
6. 기타
   치즈피자, 고구마피자, 고르곤졸라 피자, 다 맛있다 등 –총 11명 (8.9%)



1. 간장 치킨 – 105명 (44.7%)
2. 양념 치킨 – 56명 (23.8%)
3. 빠네퐁듀 치킨 – 55명 (23.4%)
4. 후라이드 치킨 – 33명 (14%)
5. 커리 치킨 – 6명 (2.6%)
6. 기타
   닭강정, 오미자치킨탕수육, 파닭, 다 맛있다 등 – 총 10명 (8.8%)

04 새로 생겼으면 하는 메뉴

새롭게 생겼으면 하는 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빠네 파스타, 뼈해장국, 콩나물국밥, 팟타이, 쌀국수, 닭꼬치, 냉모밀, 삼각김밥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추천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매일 다양한 메뉴들 앞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번에는 가장 맛있는 분식, 국수, 중식과 햄버거로 찾아오겠습니다! TO BE CONTINUE!

오선민 기자 min123012@jwu.ac.kr

너의 소원은 뭐니?

별들에게 말해봐

여러분들은 운동장을 돌거나 산책을 할 때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있나요? 공기가 맑은 덕분에 저녁시간 운동장을 돌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밤하늘을 수놓은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밤하늘을 예쁘게 수놓은 별들에게 소원을 빌어봅시다. 오선민 기자 min123012@jwu.ac.kr



별님, 제 소원은 취업 한 방에 뽀개기입니다!! 취업을 단숨에 성공해서 취업 스트레스를 오래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공서비스학과 오지원

제 소원은 '우리 가족 건강하기'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족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학과 박숙인

별님, 별님! 저는 복권 1등 당첨이 소원이에요! 1등에 당첨되어 부모님의 걱정도 덜어드리고 즐겁게 여행도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항공서비스학과 오선민

제 소원은 서른이 되기 전에 제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것인데요, 바로 두바이를 여행하는 것 입니다!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님!



항공서비스학과 조서언

제 올해 소원은 건강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최근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얼른 건강해져서 아프지 않는 것이 제 소원이랍니다. ㅠㅠ



항공서비스학과 배서희

제 소원은 이번학기 성적을 완만하게 받고, 다음 학기에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별님 노력 할 테니까 이뤄주세요...



항공서비스학과 문수빈

제 소원은 '후배들과 친해지기' 입니다. 저와 가까운 학번 후배들과는 친하게 지내지만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들과는 아직 서먹함이 많아 제가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려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한민혁

별님! 제 소원은요! 2018년 제16회 졸업전시회를 무사히 마치고 취업도 잘 하고 싶어요~!! 졸업전시회 준비하면서 게을러지지 않게 잘 지켜봐 주세요♡



산업디자인학과 박수현

저는 한 달 동안 유럽여행을 다녀오는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알바비를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산업디자인학과 정희진

별님 저는 졸업시험이랑 sen-test 불통 없이 한 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ㅠㅇㅠ.. 국시도 합격하게 해주세요오...ㅠㅇㅠ



보건행정학과 김채현

제 소원은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행복한일이니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학과 박소영

제 소원은 무언가를 시도할 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자신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테니까요!



종교문화학과 이주희

저는 올 A+성적을 받는 게 소원이자 목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니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레저스포츠학과 이민욱

아리따운 별님! 저의 소원은 자신감이 높아져서 취업 면접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경호학과 최지원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저스포츠학과 정종학

제 소원은 4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장학금을 받아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이준혁

제17호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기숙사에서 힐링하기

노는 게 제일 좋아~

기숙사생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간 무엇일까요? 바로 기숙사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식처인 기숙사에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일상의 무료함을 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중원대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힐링하며 노는지 준비했습니다.

01 낮잠자기





우리 기숙사의 메트리스는 참 폭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한 침대에서 꿀잠 자는 것도 행복이죠!^^ 혹은, 공강 시간에 낮잠 자는 것도 누군가에겐 행복일 수 있습니다. 통학하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낮잠시간! 기숙사생들만의 특권이죠~ (tip, 인형을 안고 자면 더 꿀잠 잘 수 있습니다.)

02 거울 셀카 찍기





다들 거울 셀카를 찍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쁘게 꾸민 기숙사 책상과 거울을 통해 색다른 사진을 남겨보세요. 후면 카메라로 찍는 거라 셀카보다 더욱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03 음식 쌓아두기



밥 먹으러 나가기 귀찮을 때 미리 음식을 사다 놓으면 너무 편하죠! 기숙사 안에 먹을거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매일 먹는 건 지양합시다.

04 TV 시청



심심할 때는 무엇보다 드라마나, 영화, 예능 등을 시청하는 게 최고입니다. 재미있고 웃느라 시간도 빨리 가고, 힐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TV 시청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길 바랄게요! (Tip. 같이 사는 룸메이트를 위해 이어폰은 필수!)

05 오목이나 부루마블 등 게임 하기



컴퓨터 게임보다 오프라인게임은 어떠신가요? 컴퓨터 게임은 시력감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지만 이런 게임은 그보다 더 건강한 게임이라 생각이 듭니다. 룸메이트랑 함께하면서 재밌는 추억도 남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6 나노 블럭 등 취미 생활하기



각자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나노 블럭, 뜨개질, 컬러링북 등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 보세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고 아날로그 감성에 빠져봅시다!

07 룸메이트랑 수다 떨기

힘들고, 지칠 때 사람에게서 위로받는 만큼 좋은 게 없을 듯싶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이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룸메이트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08 마스크팩 하며 피부관리 하기

하루종일 돌아다니다 지친 피부를 위해 마스크팩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기숙사에서 쉬고, 노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숙사가 하루 종일 완전히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룸메이트랑 같이 기숙사를 쓰면서 배려해야 될 점도 있지만 어떤 방법이든 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해서 즐거운 대학 생활이 되길 바라봅니다.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 힘이 되어주는 한 마디

꿈을 향해 달려가다 지쳐버린 당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있으신 가요? 말 한마디 로 지친 당신에 일상을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따뜻함 들을 한 번 살펴보려 합니다.

01 "걱정하지마,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자체가 너의 꿈에 한발 더 다가선 거야" 전기전자공학과 18학번 최종하



저는 대학에 오기 전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만 하던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선생님께 진로 상담을 받으며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듣던 선생님께서는 상담을 해주시며 마지막에 "걱정하지 마,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자체가 너의 꿈에 한발 더 다가선 거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 덕분에 고민보다는 노력과 자신감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하며 따뜻했던 그 때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곤 합니다.

02 "남을 이해하려 하지말고, 인정하라" 항공재료학과 12학번 이정우



대학입학 후 학교에 모든 것이 낯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우관계였습니다. 학교 특성상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이 잘 맞지 않은 친구와도 방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겨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과 친구와 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저와 성격이 정 반대인 친구였습니다. 한두 번 트러블이 생기다보니 나중에는 사소한 것마저도 서로 예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 되던 중 책에서 "남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인정하라" 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를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서로간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자연스레 이해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나와 맞지 않은 상대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인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덕분에 그 친구는 4학년인 지금까지도 같이 방을 쓰며 그 누구보다 뜨거운 우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03 "너보다 힘든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야, 힘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보자" 전기전자공학과 18학번 김한섭



학교생활을 하며 무척이나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 풀리는 일이 없고 혼자 기숙사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우울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룸메이트 친구들은 저를 앉히고 많은 조언과 위로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너보다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네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야, 힘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보자"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필요한건 위로와 격려였던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저를 힘나게 해주는 룸메이트 친구들에게 항상 고맙고 제가 받은 이 따뜻함을 남들에게도 베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졌습니다.

04 "너에게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도전해 보는거야"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5학번 함성태



저는 고등학교 때 항상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제가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갈등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무렵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저에게 "너에게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도전해 보는거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듣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 꿈을 위해 노력하고 많은 도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05 "모든 사람은 실수해. 실수로 인해 너가 한 단계 더 성장한 거야" 방재안전공학과 14학번 한수휘



제가 면허를 따고 얼마 되지 않아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었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직 많이 부족한 실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 운전대를 잡는 것이 조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쉽게 운전대를 다시 잡지 못하자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사람은 실수해. 실수로 인해 네가 한 단계 더 성장한 거야" 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실수는 내 성장이라 생각하고 좌절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미국의 여성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움츠리기보다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꿈을 가지고 피어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끝까지 노력해 각자의 인생 속에서 활짝 피어나 원하는 꿈을 이루는 중원인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민혁 기자 1010hmh@jwu.ac.kr

제17호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우리들의 소 소하지만 확 실한 행 복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소확행"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친구들의 소확행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짝 엿볼까요?

"낮잠 자기"

방재안전공학과 12학번 염석훈



주변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열심히 사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 평소에 피곤함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잠깐의 쪽잠이 가장 행복하고 효과적인 피로회복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사우나 가기"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5학번 김재덕



학교에서 학업, 과제에 지쳐 있을 때 주말에 한번 사우나를 꼭 합니다. 뜨거운 탕에 찜질을 하거나 찜질방에서 계란, 식혜 등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할 때 피로가 풀리며 행복함을 느낍니다. 사우나는 힘찬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의 행복이자 원동력입니다!!

"커피숍에 앉아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혼자 독서의 시간 갖기"

레저스포츠학과 12학번 김수호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생각의 정리가 필요할 때 커피숍에 앉아 커피와 함께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닌 내가 '읽고 싶은 책' 을 읽고 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차분해지며 복잡했던 생각도 잘 정리가 됩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생활 보내기"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5학번 홍창현



복학한 뒤 낯선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언제나 반겨주는 예전 동기들과 시내에 나가 밥을 먹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웃고 떠들며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밤에 집에서 영화 보며 맛있는 거 먹기"

항공재료학과 13학번 윤지석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자취방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과 같이 맥주 한 캔 마시면서 혼자 영화를 볼 때 하루의 모든 피로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행복함을 느낍니다.

"하루 일 마치고 친구와 밤에 산책하기"

경찰행정학과 16학번 이주영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뜩 떠오르는 친한 친구를 불러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도 나누는 가장 소중한 시간 이였던 것 같습니다.

"간만에 집에 올라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항공재료학과 12학번 황보석



집으로 올라가서 동네 친구들, 친한 선배들, 가족 등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같이 수다도 떨며 좋은 시간을 갖는 것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자기 전 잠깐 음악 듣기"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정주영



바쁜 학업을 마친 후 자기 전 잠깐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피로가 풀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날을 보다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저만의 활력소입니다!

"코인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기"

레저스포츠학과 13학번 홍태환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코인노래방을 자주 찾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애창곡을 목청껏 부르고 나면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답답한 일상의 돌파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밤 편의점에서 마시는 맥주 한 캔"

국제통상학과 14학번 권난영



한여름의 열대야는 이길 재간이 없죠.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세 폭탄이 날아올까 무섭고 선풍기는 임시방편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편의점으로 피서를 갑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맥주 한 캔과 파라솔, 의자만 있다면 푹푹 찌는 더위를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레저스포츠학과 13학번 정종학



가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기억나는 대화들을 글로 쓰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의 글을 읽고 영감을 받아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글들을 가지고 있다가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선물해주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불 덮고 과자 먹기"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채지열



이불 속만큼 기분 좋은 곳은 없죠! 포근한 이불 속에서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 그 행복은 배가됩니다. 요즘 같은 여름엔 에어컨을 틀고 이불 속에 들어가 행복을 느끼는 사치도 부린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우울하거나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일상 속에서 찾는 그 행복은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 모든 사소한 것들이 누군가에겐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중원대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준혁 기자 5075379@jwu.ac.kr

작업치료학과와 간호학과가 함께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은 저희가 지켜 드릴게요"



6월 1일 중원대학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훈 드림 페스티벌' 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들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부스를 열어 국가유공자를 위한 작은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예쁜 마음이 담긴 이번 활동을 다같이 엿볼까요?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예방 수공예품 만들기 체험 부스'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치매선별 검사체험' 부스는 치매 예방을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수공예 부채,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어르신들과 돈독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혈압 및 혈당 체크 체험부스'





간호학과 학생들은 '혈압 및 혈당 체크' 부스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의 증상과 합병증, 치료방법,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며 규칙적인 운동도 꼭 하시라고 손자 손녀의 마음으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간호학과와 작업치료 재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직접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감사편지 낭독과 사랑의 카네이션을 정성스럽게 달아드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훈훈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여러분들에게 이번 경험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신백철 (작업치료학과 18학번) :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뵙고, 이렇게 만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저희과 부스에서는 ' 치매 선별 검사' 를 열었는데요, 저의 전공을 살려 그 분들께 도와드릴 점이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작업치료학과에서 실력을 쌓은 뒤 졸업 후에는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작업치료학과 김미정 교수님 :



학생들이랑 전부터 보훈지청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점점 능숙하게 해내는 것 같아 대견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학생들이 더 어르신들을 이해 할 수 있고, 환자를 대하는 법, 그리고 그 과정속에 배워가는 게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주미 (간호학과 16학번) :



오늘 저희는 동아리 활동으로, 혈압 및 혈당 체크 부스를 열었습니다. 지금 전 2학년인데요, 아직 실습을 나가기 전이라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미리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공자 어르신들도 만나 뵙게 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연연식 할머니

손자 뻘 되는 학생들을 만나니, 우리 손자도 생각나고 학생들 한명 한명 모두 너무 예쁘네요.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박물관 관람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황미경 할머니

학생들이 어르신들 건강 챙긴다고 혈압도 재주고 당도 체크해주고 대견합니다. 어르신들에게도 깍듯이 대하고 예의바른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 더 멋진 간호사, 작업치료사가 되길 바랄게요.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개최된 행사를 통하여 보훈가족들을 비롯한 학생, 교수님 등 많은 이들이 뜻깊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의미 있는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 보는 이도 함께 뿌듯해지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에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길 바라며 그들의 앞날도 응원합니다!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제17호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항소전

– 항공대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지면은 학과의 요청을 받아 구성 되었습니다. 다양한 소식 및 이슈를 알리고 싶은 학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민혁 기자 1010hmh@jwu.ac.kr / 이준혁 기자 5075379@jwu.ac.kr

16학번 항공서비스학과 견학 및 실습 -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위하여

지난 5월8일부터 9일 이틀간 항공서비스학과에서 실습체험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첫째 날 학생들은 교관 분들과 함께 이미지메이킹, 워킹, 메이크업 등의 수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받는 실습이지만 학생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수업과정들을 잘 이수하는 모습입니다! 이틀간의 실습동안 웃음을 잃지 않으며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항공서비스 학과였습니다.



◀바르고 단정한 모습을 보위기 위해 이미지메이킹 실습을 하는 항공서비스 학과 학생들입니다.



◀이틀간 아시아나 항공 본사에서 실습체험을 하기위해 모인 학생들입니다.



◀실제 기내와 가장 유사한 실습시설에서 보다 완벽한 실무를 익히며, 현장 감각이나 노하우까지 배우는 모습입니다.

항공정비학과 견학 '육군 항공 무기체계 소개회' - 화려한 비상(飛上)을 위해 준비한다

항공정비학과 2학년, 4학년 학우들이 지난 5월 17일 함께 육군 항공학교 무기체계 소개회로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군, 산림청, 경찰청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회전익기와 군 헬기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잡한 헬기의 내부구조지식과 응용능력까지 배울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회전익기 : 회전하는 날개에 의한 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어서 나는 항공기



◀항공정비학과 학생들이 육군 항공학교 '무기체계 소개회'에 방문 하였습니다.



◀계류장에서 현업 정비사 분이 직접 헬기(500MD)를 학생들과 관찰하며 실무에 필요한 팁이나 지식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감을 익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대학 E-스포츠 동호회/대회 - 오늘 밤은 항공대학 치킨이닭!

2018년 5월 23일 항공대학에서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항공대학 내 5개 과가 하나의 취미로 뭉치는 일이 힘든데 학생회 측에서 E-스포츠 동호회를 만들어 학생들 간에 더욱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날은 배틀 그라운드/리그오브레전드 이렇게 2가지게임을 진행해 팀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보여주었습니다. E-스포츠 동호회를 하면서 선후배는 물론 단대 내 안면이 없던 학우들과도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E-스포츠 동호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게임(배틀그라운드)을 진행하며 서로 치킨을 뜯기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회 시작 전 음료 한잔 마시며 몸을 푸는 항공대학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중원이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이런 계획 어때?

1 배낭여행

2 자격증 공모전

3 운전면허

4 건강관리 운동하기

5 영어공부

너의 삼겹살 취향이 궁금해~

학교에서 먹는 학식 또는 밥이 맛있지만 고기만큼 향 좋고 맛있는 든든한 음식은 없다!! 강의가 끝나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나에게 행복을 주는 한겹도 두겹도 아니죠~ 세겹인 삼겹살! 중원대학교 학생들에게 삼겹살 취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배서희 기자 bys07120@naver.com





김성희 (레저스포츠학과 17학번)

상추와 김치/일단 고기를 너무 바삭하게 구워도 안되고 적당히 노릇노릇해지게 구워서 상추에 쌈무, 밥을 올리고 고기 두 점에 김치와 쌈장 듬뿍 얹어 먹는 것이 제 비법입니다!



오지원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상추 또는 깻잎과 쌈장/상추쌈 또는 깻잎쌈에 고기 2점을 올리고 쌈장과 마늘쫑을 올려 냠냠 먹는 방법 또는 구운 김치와 기름장에 찍은 고기를 함께 먹는 법입니다!



정지윤 (생체의공학과 15학번)

볶음김치와 파 겉절이/삼겹살을 먹을 땐 무조건 상추에 밥과 볶음김치를 올리고 파 겉절이에 싸서 먹거나 쫄면에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 같이 먹으면 레알 밥도둑이에요!



이기동 (항공정비학과 15학번)

파김치와 명이나물/참소스에 묻혀서 쌈장을 얹고 마늘을 넣어 쌈을 싸먹는 방법이 저만의 비법입니다! 여러분도 제 비법에 도전해보세요!



김채현 (보건행정학과 15학번)

깻잎과 버섯/나만의 꿀팁은 남들이 고기 한점을 먹을 때 두점을 몰래 먹는 것 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도 행복도 두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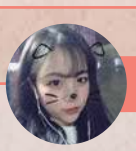
이주희 (종교문화학과 17학번)

쌈장과 상추/쌈에다가 삼겹살 한 줄을 올려 쌈장과 마늘을 올려 돌돌 말면 삼겹살 롤이 되는데 이렇게 먹으면 재미도 있고 맛도 좋아요!



황지휘 (항공정비학과 15학번)

김치와 명이나물/참소스에 묻혀서 쌈장을 얹고 밑반찬을 올린 후 상추쌈에 싸서 먹는 방법! 아직도 삼겹살을 그냥 먹나요? 냉면과 함께하면 더 맛있습니다. 냉면 한 젓가락과 삼겹살 두 점과 함께면 그날 하루는 삼겹살을 다 먹었다고 할 수 있죠!



조서언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쌈무와 초장/고기를 먹을 때 고기만 먹으면 섭하죠! 고기를 밥과 함께 볶아 삼겹살 볶음밥을 해먹는 법입니다. 그 위에 쌈장을 올려 먹으면 금상첨화! 양파절임과 파절임 그리고 구운 김치 이 삼종세트만 있다면 나도 삼겹살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김수진 (보건행정학과 17학번)

저에게는 정말 특이한 삼겹살 굽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삼겹살 구울 때 집게로 다지듯 두드려주는 것 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정말 벌집삼겹살을 먹는 것 같고 주위 사람들도 진짜 같다며 놀라워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구워 먹어보세요!

중원대에서 청정으로 살기~

– 보이지 않는 위협 미세먼지 대처법

자연이 아름다운 청정지역 괴산도 미세먼지만큼은 예외가 아니네요.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봄철 미세먼지 – 황사 예방법! 함께 보시죠!

이준혁 기자 5075379@jwu.ac.kr

첫째! 가능한 창문을 열지 마세요!



야외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땐 되도록 창문을 닫아주세요. 환기를 시키기 위해 열어 놓은 창문으로 오히려 미세먼지가 침입 할 수 있거든요!

*사진모델 :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김영재

둘째!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꼭!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가 있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과 'KF〈80,90,98〉(Korea Filter)' 표시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셔야 해요.

셋째! 물을 수시로 마셔주세요!

호흡기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목을 잠기게 하고 따갑게 만들며, 심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증상을 완화 시켜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나쁜 미세먼지를 걸러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 꼭 실천 해야겠죠.

넷째!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히



예민하고 약한 피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외출 후 곧바로 샤워하고 세안도 더 꼼꼼히 해야 한다는 사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옷만으로는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우니 외출 후에는 꼭 깨끗이 씻어주세요!

다섯째! 미역, 과일, 채소 등을 섭취

미역,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채소에는 미세먼지의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미세먼지를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혈액까지 맑게 해준다고 하니 학식에 미역국이 나온다면 남기지 않고 꼭 다 먹어야겠죠?

그밖의 Tip!

미세먼지 측정 어플 "미세미세"

이 어플은 gps를 통해 현재 본인이 있는 장소나 설정을 통해 다른 지역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자주 가는 곳은 즐겨찾기를 통해 매번 검색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 외출하시기 전 이 어플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JR의 사진교실

당신의 손을 금손으로!



21세기인 지금은 너도나도 포토그래퍼 시대! SNS의 엄청난 대중화로 인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대충 찍어도 엄청난 실력의 사진이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하. 지. 만 사진의 '사' 자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JR이 준비한 '사진을 1도 모르는 우리의 손을 금손으로 만들기!' 지금부터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혁 기자 1010hmh@jwu.ac.kr

*사진 모델 :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김영재,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배서희

글을 읽기 전 점검해야 할 3가지 팁!



1. 렌즈점검
지문이나 먼지 등이 렌즈에 있다면 아무리 사진을 잘 찍는다 해도 소용이 없겠죠?



2. 안정적인 자세
한 손으로만 들고 찍는 불안정한 자세로는 절대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없는 법! 양손으로 잡고 안전하게!



3. 초점과 노출
스마트폰은 촬영 시 클릭만으로 초점과 노출을 손쉽게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노출이 맞는 사진과 안 맞는 사진은 천지차이!

01 컵을 찍지 말고 내용물을 찍자.





보통 우리가 카페에 가면 컵 사진을 주로 찍지만, 마음에 들게 사진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시죠? 이럴 때는 컵이 아닌 내용물을 찍어보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물, 얼음, 거품 등이 의외로 색다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02 과감하게 자르기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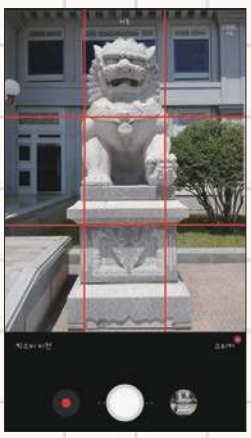




피자처럼 동그란 음식은 앉아서 찍는 것보다 일어나서 찍는 게 더 잘 나오는 법! 피자 전체를 사진에 담으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귀퉁이를 잘라봅시다. 다른 그릇과 함께 일부부만 찍어도 먹음직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03 기본중의 기본! 격자무늬 만들기
(카메라 설정에서 수직 / 수평 안내선 설정하기!)





보통 사진기를 켜고 사진을 찍으면 뭔가 삐뚤고 수평이 안 맞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을 때는 9등분으로 나누는 스마트폰의 격자무늬 기능을 사용합니다. (본인 카메라에 안 나타난다면 설정에서 바꾸면 됩니다. 필수중의 필수!) 격자무늬가 나타나면 여기에 피사체에 수평과 수직을 맞춰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훨씬 깔끔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04 늘어나라 다리길이!!
(카메라 위치를 허리에 두고 찍기)





흔히들 찍는 전신샷. 하지만 사진을 찍고나면 짜리몽땅하게만 나오는 사진들 있으시지 않은가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진을 상대방과 똑같은 높이에서 찍는 것이 아닌 카메라를 허리쯤으로 내린 뒤 몸 쪽으로 살짝 기울여 찍는다면 훨~씬 모델 같은 8등신 사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쪽보다 위쪽에 여백을 더 남겨주세요~

05 아웃 포커싱을 활용하자
(선택중 아웃포커싱 선택! 없다면 어플을!)





아웃 포커싱이란 배경을 흐리게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이 기능은 피사체에만 초점이 잡혀서 집중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DSLR 같은 카메라 느낌도 줍니다. 인물이나 사물 등 어떠한 곳에 사용해도 효과가 좋으니 10장중 1장은 아웃포커싱! 카메라 기능에 아웃포커싱이 없다면 SNOW 캠 어플에서 DSLR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

MADE in 중원

빠숑피플 2

또다시 계절이 지나가고 흘러가는 유행에 다시 새로운 옷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 자신만의 스타일로 중원대학교를 빛냈던 패피들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한 번 패피들을 모셔봤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자신만의 개성을 자랑하는 중원대학교 패션피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새로운 빠숑피플들을 만나보시죠! 오선민 기자 min123012@jwu.ac.kr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이재웅입니다.

Q. 평소 어떤 스타일을 주로 선호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평소 단정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와이셔츠나 코트와, 슬랙스를 하의에 매치해서 깔끔하게 많이 입습니다.

Q. 옷은 주로 어디서 구매 하나요?

저는 옷 핏을 중요시하는데 온라인으로 옷을 주문하면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랑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직접 들려서 입어보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옷을 구매합니다!

Q. 본인이 주로 활용하는 패션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키가 큰 편이라서 자켓보다는 롱코트처럼 저의 키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Q. 패션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과 자신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좋은 옷이라도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옷을 살 때 핏을 가장 중요시하고 "내가 모델이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패션의 완성에 다가갑니다.

Q. 어느 계절의 옷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겨울의 옷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상의에 반팔만 입어서 패션을 돋보일 만한 아이템이 없는데 겨울에는 예쁜 티, 롱코트, 목도리 등 여러 패션아이템으로 돋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나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스타일링 한다. vs 남들이 보기에도 예쁜 스타일 위주로 스타일링 한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스타일링 한다' 입니다. 저는 패션이란 개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따라하는 무난한 스타일보다는 나에게 맞는 옷들과 함께 내 개성을 뽐내는 것이 패션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TIP 재웅's

패션의 완성은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스타일링을 하고 항상 자신감을 갖는다면 당신도 패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나초은입니다.

Q. 평소 어떤 스타일을 주로 선호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기분에 따라 다르게 입어요. 어떤 때에는 갖추어 입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스트릿 패션을, 또 다른 때에는 누가 봐도 심플하게 입어요. 주로 즐겨 입는 옷은 박시티에 편안한 슬랙스나 통이 큰 바지인데, 저는 딱 붙는 정 사이즈 보다는 제 사이즈 보다 두 사이즈 정도 큰 사이즈들을 선호해요.

Q. 본인이 주로 활용하는 패션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저는 *초커를 가장 애용해요. 옷을 아무리 무난하게 입어도 포인트가 되는 게 초커의 매력인 거 같아요.

*목덜미 주위에 밀착되도록 착용하는 목걸이.

Q. 올해의 컬러를 활용한 아이템이 있나요?

제가 가장 아끼는 스커트가 있는데 2018 S/S 컬러인 세일러 블루를 활용한 스커트입니다!

Q. 어느 계절의 옷을 좋아하시나요 ?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롱코트를 활용해서 스타일링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옷을 여러 겹을 껴입을 수 있어서 좋아요. 봄이나 여름에는 얇은 옷 하나만 입어도 더운데 겨울에는 고민 없이 좋아하는 옷들을 여러 겹 껴입을 수 있어서 좋아요.

Q. 나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스타일링 한다. vs 남들이 보기에도 예쁜 스타일 위주로 스타일링 한다.

저는 제 만족을 위해 스타일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과 옷이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거나 달리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남들의 시선보다는 제 만족만을 위해 스타일링 하는 편이랍니다!

TIP 초은's

스타일링이 밋밋해 보인다면 초커를 활용 해 보세요! 초커가 포인트가 되어 줄 겁니다.

매력적인 패션피플들이 넘쳐나는 중원대학교!

자신만의 스타일을 소개하고 자랑하고싶은 중원인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JR은 매력넘치는 중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페이스북 메세지 : 중원대학교 학생기자단 JR – Jungwon Reporters / 인스타그램 DM : jungwon_univ_jr

중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여름학기 수강생모집



접수기간 : [학 기] 2018. 6. 11. ~ 2018. 7. 31.　　[월 별] 수강 전 달 마지막 주
수강기간 : [학 기] 2018. 7. 2. ~ 2018. 8. 31.(8주)　　[월 별] 매월 1일 ~ 말일 (1개월)
지원자격 : 일반[성인]

평생교육원 개설교육과정

● 학기별 강좌 (2018. 7. 2 . ~ 2018. 8. 31)

구 분	세부교육과정	학습기간	교육 시간		학습비	담당
			요일	시간		
GLOBAL LANGUAGE 아카데미	영어회화(초급)	8주	월/수	19:00~20:00	120,000	김은정
	중국어회화(초급)	8주	수	19:00~21:00	120,000	–
	일본어 초급	8주	수	10:00~12:00	120,000	이노우에 미유
	일본어 초급	8주	수	19:00~21:00	120,000	이노우에 미유
중원인성 음악 아카데미	경기민요	8주	월	14:00~16:00	120,000	이숙진

● 월별 강좌 (매월 초에서 말까지 : 2018. 7 . 2 .~ 8 . 31)

구 분	세부 교육과정			학습 기간	학습 요일	시간	학습비	담 당
스포츠웰빙 아카데미	골프초급			1개월	수	18:00–20:00	110,000	최 예 형
	골프실전			1개월	수	10:00–12:00	130,000	최 예 형
	수영	오전	초급	1개월	화/목	10:00–10:50	80,000	양 재 영
			중급	1개월	화/목	10:00–10:50	80,000	박 주 연
			상급	1개월	수/금	10:00–10:50	80,000	박 주 연
			고급	1개월	수/금	10:00–10:50	80,000	양 재 영
		오후	초급	1개월	화/목	19:00–19:50	80,000	임 근 태
			상급	1개월	수/금	19:00–19:50	80,000	김 찬 규
			고급	1개월	화/목	19:00–19:50	80,000	김 찬 규
	요가			1개월	월/목	19:00–20:00	80,000	송 남 수
	방송댄스(k–pop)			1개월	수	19:00–20:00	80,000	김 채 은
	댄스 스포츠			1개월	화	19:00~20:30	100,000	–
중원인성 음악 아카데미	색소폰			1개월	월/금	18:30–20:30	100,000	양 명 직
	통기타연주			1개월	수	18:30–20:30	80,000	강 진 호
	하모니카(초급)			1개월	목	10:00–12:00	40,000	남 춘 우
	하모니카(고급)			1개월	목	19:00–21:00	100,000	남 춘 우
GLOBAL LANGUAGE 아카데미	일본어(여행회화)A			1개월	화	10:00–12:00	80,000	이노우에 미유
	일본어(여행회화)B			1개월	화	19:00–21:00	80,000	이노우에 미유

▶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 전화 : 043)830–8232~3
▶ 팩스 : 043)830–8239
▶ 등록계좌번호 : 국민은행 615801–04–211450
▶ 예금주 : 중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홈페이지 : http://lec.jwu.ac.kr